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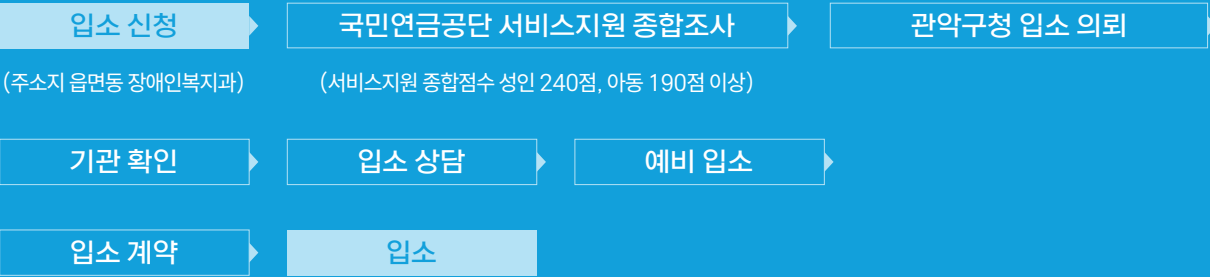


실로암효명의집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입소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가온다솜

입소절차



효명의집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인사를 나누고, 식사 시간엔 서로를 챙기며,
누군가 아프면 함께 걱정하고,
누군가 웃으면 함께 미소 짓는 사람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꼭
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마음을 나누는 이곳, 따뜻한 손길이 머무는 이 공간—
여기는 또 하나의 가족이 살아가는 집
실로암효명의집 입니다.

실로암효명의집은
거주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고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션

우리가 선택하고 만드는 함께 걸어가는 삶
“말하다, 이루다, 빛나다”

비전

“모든 거주인이 인격 주체로서 존중하며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실로암효명의집, 2028”



01

거주인 중심의 개별화 체계 구축

개별 서비스 통합지원 계획 강화
거주인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



02

건강관리 체계 구축

의료지원 체계 강화
거주인 중심의 재활치료 강화



03

시설 환경 개선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
노후 설비 보강



04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대외홍보 강화
유관기관 교류 활성화

가온다솜 42호 CONTENTS



- | | |
|-------------------|-----------------------------|
| 02 미션·비전 | 10 신입직원소개 |
| 03 시설현황 | 11 보호자의 마음속 이야기 |
| 04 원장님 인사말 | 12 거주인의 따뜻한 이야기 |
| 05 실로암칼럼 | 13 건강칼럼 |
| 06 신규프로그램 | 14 도움의 손길 |
| 07 효명의집 이모저모 | 15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
| 09 현장 포커스(원장이취임식) | |

법인명	법인대표	시설명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김선태 목사	실로암효명의집
원장	거주인 현원/정원	직원 현원/정원
박은애	30명/30명	32명/33명

발행일 2025년 7월
발행인 박은애
발행처 실로암효명의집
전화 031) 876-2900 팩스 031) 876-2990

통권 42 호
편집인 김호직, 장혜승, 전승미
주소 (1142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656
홈페이지 <http://www.silwelnh.or.kr>

법인대표 김선태



원장님 인사말

2025년은 제가 실로암에서 근무한지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이 시간을 거쳐 원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송구한 마음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항상 이웃을 섬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후에는 부산 라이트하우스 등 장애인 기관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교회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부산YWCA에서는 초등학교때부터 대학까지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사회 복지를 선택하고 시작하게 된 토양을 잘 만들고 이끌어주신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눈물과 땀을 바쳐서 우리 효명의집 모든 가족들을 제 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어르신을 비롯하여 모든 중증장애거주인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기도하면서 모든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효명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희망과 땅의 소망을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며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만든 효명의집의 미션은 「우리가 선택하고 만드는 함께 걸어가는 삶, ‘말하다’, ‘이루다’, ‘빛나다’」입니다. 실로암효명의집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본인의 원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나가, 삶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로암효명의집 원장 박은애



“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눈물과
땀을 바쳐서
우리 효명의집
모든 가족들을
제 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

실로암 칼럼



실로암효명의집 원목 김무경

늙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 쫓겨나는 것입니까?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데이케어센터 설치 결사반대.”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이른바 ‘노치원’ 하나 짓는 일을 두고 이렇게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구에 위치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은 단순한 개인의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늙음’이라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얼마나 불편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사회적 고백입니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약함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며 살아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사회는 늘 그랬습니다.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누구든 약한 사람들은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15년 전, 내가 일하는 실로암효명의집이 서울시 시설임에도 경기도에 세워진 이유도 같은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왜 서울시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오느냐’며 격렬히 반대했지요. 겉으로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안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반대의 선두에 섰던 주민은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시선이 노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늙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혐오의 시선이 언젠가 자신을 향하리라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도 ‘노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 아래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이 갈등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노인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반발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공동체는 가장 약한 자를 품을 때 건강해집니다.

2036년이면 우리 인구의 3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이미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지금, ‘노치원’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이 갈등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위기의 예고편일지 모릅니다.

나는 복지 현장에서 매일 봅니다.

‘내 가족이 이용할 복지시설’에는 너그럽지만, ‘내 이웃이 이용할 복지시설’에는 냉담한 이중성.

기득권과 편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를 말하는 사회는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노인을 위한 자리는 결국,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늙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돌봄은 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노치원’이 아니라 노인을 향한 존중입니다.

지역사회체험교실



딸기농장 체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 속에서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직접 보고, 만지고,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수확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치유농업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직접 수확한 허브를 손끝으로 만지고 향을 맡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족욕과 함께 진행된 차 한잔 나눔 시간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힐링의 순간이 되었으며,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효명의집 이모저모

소규모 나들이

효명의집 거주인들은 1월부터 6월까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중한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장흥조각공원과 장흥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와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자연의 향기를 만끽했습니다. 또한 옥정호수공원과 울곡수목원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끼며,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과 따뜻한 기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양궁교실, 댄스교실

발달장애 거주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참여한 양궁교실에서는 과녁을 향해 집중하며 활시위를 당기는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도전의 즐거움을 경험했으며 댄스교실에서는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소통과 즐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주시체육회 프로그램

양주시체육회를 통해 거주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체조, 휘바스포트를 통해 신체 활력을 높이고, 이 경험을 통해 발달장애 거주인들은 양주시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며 소통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거주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효명의집 이모저모

특별행사

올해 상반기 동안, 거주인들과 함께 한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에 큰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1월 24일 설날 행사에서는 함께 떡국을 나누며 새로운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4월 17일 장애인의 날 행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에서는 거주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가득 담아 전했습니다.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설날행사(1월 24일 금요일)



장애인의 날 행사(4월 17일 목요일)



어버이의 날 행사(5월 8일 목요일)



자립지원서비스, 지역체험 프로그램

발달장애 거주인들은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뜻깊은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롯데월드와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방문하며 대중교통을 스스로 이용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신감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롯데타워 아쿠아랜드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관람하며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호기심과 즐거움을 마음껏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포커스 (원장이취임식)

6월 30일, 실로암효명의집 원장 이취임식이 효명의집 4층 강당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초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으며, 축하와 감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김선태 이사장님을 비롯해 다수의 목회자 내빈과 최동익 상임이사님, 김미경 관장님 등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하셨으며, 효명의집의 모든 거주인과 직원들도 함께 자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취임 감사예배는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사회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의 기도,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김선태 이사장과 최동익 상임이사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년간 효명의집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무경 원장님께서서는 그간의 깊은 소회를 나누시며, 앞으로는 원목으로서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어르신들을 섬기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어 새로 취임하신 박은애 원장님께 따뜻한 박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박은애 원장님께서서는 사무국장으로 함께 해 온 효명의집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거주인들의 평안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호산나 합창단과 목회자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감사가 남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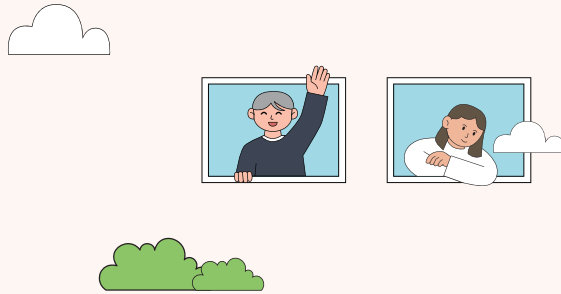
앞으로도 실로암효명의집의 꾸준한 성장과 평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신입직원을 소개합니다.

생활지도원 김민재 ★

효명의집에 첫 출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던 지난 2월이 어느덧 5개월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동료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거주인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며,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며 더 많은 배움과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지도원 김보현

안녕하세요. 효명의집에서 생활지도원으로 함께하게 된 김보현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맡게 된 업무라 많이 설레는 한편, 긴장도 되고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선임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혀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을 다해 보조하고,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효명의집에 계신 모든 거주인 분들의 일상과 여가 시간이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마음과 열린 자세로 서포트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마음속 이야기

우리 집 막둥이 독립하는 날

박선주(박선진 ct 보호자)

올 3월 선진이의 독립을 하는 날, 전날 내린 봄눈이 길가의 나무 위에 소복히 앉아 눈터널을 만든 광경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도착한 그 곳... 실로암효명의집

사랑하는 우리집 막내의 새로운 거처로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진즉 하였을 독립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마냥 축하할 수도 없는 복잡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긴장을 한 채 원장님실에서 마주하게 된 효명의집 원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의 안내와 자세한 설명에 이곳이 이제는 우리 동생의 등지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안도감이 들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 고집하는 선진이가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도 쉴새 없이 묻고 묻고, 아마 선생님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입소 후 선생님들이 선진이가 활동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셨고 효명의집 행사에 초대도 해주시고 가족간담회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원하는 말들을 수렴하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집 막내였던 선진이는 같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는 제일 언니가 되어 동생들과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과는 대화도 하고 장난도 친다고 하는 얘기들을 전해 들으며 선진이의 독립은 어쩌면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성공케도에 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금 가족들은 효명의집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과 식단을 보고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게 되면서 서로 사는 공간은 다르지만 조금 더 선진이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형편없는 글이라도 지면을 빌어서라도 감사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효명의집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건강 기원하고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라면 선진이가 건강하게만 지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너의 독립을 축하하고
너무 많이 사랑한다.” 사랑해~



거주인의 따뜻한 이야기

이보다 더 좋을수는 없다.

효명의집 거주인 김홍식

저는 세 살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했고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자나 깨나 내가 무엇을 해야 앞으로 부모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립 해서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15세 때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공부를 해서 부모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약 2년 3개월 제 나이드 어느새 17세가 되던 어느 봄날 혼자서 집에 있는데 밖에서 놀던 여동생이 “오빠 어떤 사람이 오빠 학교 가자고 데리러 와요” 하며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다음 날 저는 꿈에도 그리던 맹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늦깎이로 시작한 배움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캄캄한 터널 같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딤 때마다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세상을 더듬고 귀로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저는 다시 세상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어둠을 딛고 목사로 우뚝 일어섰습니다.

지금 저의 세상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책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자연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겁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저를 더 이상 묶어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저의 삶은 역경을 딛고 피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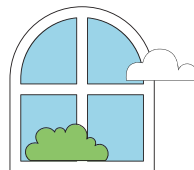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저의 이 짧고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독자들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건강칼럼

노인 치아 건강과 구강 관리

간호과장 최영훈

“입속 건강이 곧 전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잇몸 건강이 약해집니다. 잘 씹지 못하면 식사 불편은 물론, 영양 부족과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 칫솔질, 하루 세 번 잊지 않기

- 1) 부드러운 칫솔이나 전동 칫솔을 사용해 잇몸에 부담 없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입안을 행구고, 하루 3회 칫솔질을 권장합니다.
- 3) 칫솔은 2~3개월에 한 번 교체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의치(틀니) 청결 관리

- 1) 틀니 착용자는 식사 후 틀니를 빼서 전용 세정제로 닦아야 합니다. 매일 세정하지 않으면 세균 번식으로 구내염,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 자기 전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깨끗한 물에 담가 보관하세요. 말린 상태로 두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 3) 입 안이나 잇몸에 통증, 헐거나 상처가 생겼다면 즉시 치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3 정기적인 치과 검진

- 1) 최소 1년에 한 번, 치아와 잇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 2) 일반 치과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 치과 전문센터나 보건소의 장애인 구강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구강건조 예방하기

- 1) 침이 적어 입이 마르는 어르신들은 충치, 잇몸질환이 더 잘 생깁니다.
- 2)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게 돕고, 말을 못 하거나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이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권해주세요.
- 3) 입안이 마를 때는 입안을 행구거나 무가당 껌을 씹도록 하여 침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5 입속 건강이 곧 전신 건강!

- 1) 치아 건강이 나쁘면 음식을 잘 씹지 못해 영양이 부족해지고, 식사 의욕도 떨어집니다.
- 2) 잇몸이나 입안 염증으로 통증이 생기면,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폐렴이나 전신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구강 관리는 하루 세 번, 평생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알아두면 좋은 지식 !!



1. 임플란트 보험 적용

- 1)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 적용 범위 : 1인 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하며, 앞니 어금니 구분 없이 가능
- 3) 환자 본인 부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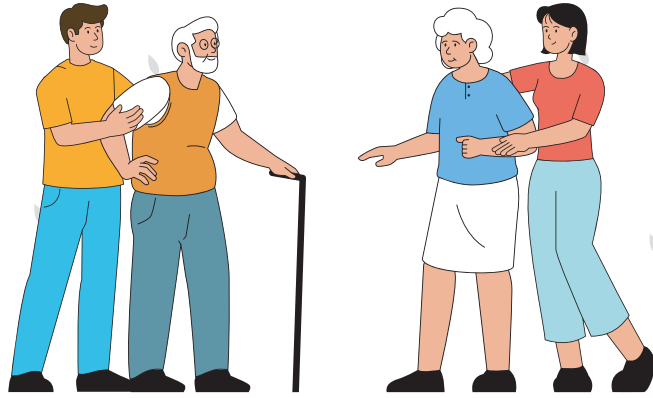
2. 틀니 보험 적용

- 1)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 적용 범위 : 7년마다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상·하악 따로 적용
- 3) 환자 본인 부담 30%

3. 각 도·시 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

도움의 손길

“ 사랑을 나누수록 행복이 커진다고 합니다.
한분 한분의 정성들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루며 그 큰사랑이
우리 효명의집 거주인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힘이 됩니다.”



후원 안내 ☎ 031-876-2900 계좌번호 :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효명의집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효명의집
- 결연 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 물품 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 해피빈** 실로암효명의집 검색 후 기부 가능



후원금 납입방법

- CMS후원 (출금이체서비스)**
 - CMS는 후원자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어 복지관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후원 방식입니다.
 - 효명의집에 비치된 후원신청서나 홈페이지 후원 신청에서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달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 가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이야기

(단위: 원)

후원금 결산보고(2025년 1월~6월)

세입		세출	
이월금	14,666,049	사무비	15,681,633
지정후원금	1,811,200	재산조성비	8,314,060
비지정후원금	16,562,000	사업비	6,148,970
합계	33,039,249	합계	30,144,663

후원자 현황(1월~6월)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2025년 1월~6월)

- 단체** 아워홈, 대광교회봉사팀, 태원엘리베이터(주), 해피빈
- 개인** JJChurch, 계속경, 권수진, 권순현, 김경민, 김경애, 김광훈, 김금선, 김두선, 김무경, 김미경, 김민재, 김선태, 김수, 김순희, 김영수, 김영화, 김원희, 김은철, 김은희, 김재훈, 김태웅, 김태훈, 김현정, 김호직, 김홍식, 노향님, 노형지, 도윤희, 마지안, 박광선, 박대삼, 박성일, 박수현, 박옥희, 박용순, 박은애, 박인수, 방옥자, 서희조, 신동선, 심승섭, 양민정, 엄현희, 오창래, 유현서, 유홍진, 윤성재, 윤순례, 윤승희, 윤재훈, 윤찬호, 이강일, 이강일, 이길원, 이선민, 이승욱, 이연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태, 이완규, 이용석, 이정원, 이혜지, 임성민, 임영희, 임진섭, 장은경, 장혜승, 전승미, 정구연, 정유진, 정진아, 조성일, 조영수, 조은지, 조정희, 조형호, 주람, 주안성, 주재은, 진순복, 최동익, 최영아, 최영훈, 최은희, 최준호, 최진규, 편보영, 한승진, 한재준, 함요한, 함은창, 함지훈(광림우드), 함현식(광림목재.철물), , 허강우, 홍성현, 황선교, 황선민, 황진향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자(Volunteer) - 세상을 움직이는 1% 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시간의 자발적 나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합니다.

- 신청 대상**
 -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대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노력봉사 : 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보조(생활실청소, 안내보행, 말벗 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 문화행사봉사 : 거주인을 위한 문화행사 보조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등)
 - 전문봉사 : 전문기술 소유자의 능력을 활용한 봉사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 교육지원 : 거주인을 위한 교육훈련 보조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웃음치료 등)

- 신청 방법**
 - 01 모집분야 확인 > 02 내방 및 전화상담 > 03 봉사영역 확인 > 04 봉사일정 협의 > 05 신청서 작성 및 교육 > 06 활동진행 및 평가 > 07 인증서 발급